

글짓기 대회 주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처음으로 해외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19살 때 혼자 비행기에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목적지는 이탈리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한 달 동안만 홈스테이를 하기로 했어요.

일본을 출발하고 이탈리아 국내에서 갈아탈테 문제가 생겨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옆에 있었던 아저씨가 아메리카노
같은 것은 마시지 말라고해서 에스프레소를 주문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서 한달 동안 저는 맛있는 것을 마구 먹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작은 마을의 시장에는 본 적이 없는 채소, 선명한 색의 과일,
신선한 해산물, 좋은 냄새의 치즈나 햄등이 있고 보는 것 만으로도 즐거웠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의 식사는 호스트 어머니가 만들어주셨어요.

식당에 오르는 이탈리아 요리는 처음 보는 것 뿐이라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맛있었어요.

낮에는 매일 같은 식당에 갔어요. 부부가 들어서 하고 있는 식당인데 맛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친절하게 해주었어요. 마늘과 올리브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식당에 간 후에는 항상 젤라토를 먹으러 갔어요.

젤라토 가게에는 항상 손님이 많이 있고 집에서 1kg이나 2kg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러오는 사람들도 자주 봤어요. 젤라토에 사용되는 과일도 신선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맛은 딸기 맛이었어요. 앞이 붙어있는 작은 딸기가 통째로
들어 있고 그위에 폭신폭신했던 생크림을 올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온지 2주전도 지났을 무렵에 집에서 리조또가 나왔어요.

2주만에 먹은 쌀이었어요. 한 입 먹었더니 멈출 수 없어서 엄청난 속도로 먹었어요.

저는 항수병에 걸리지 않는 편인데 그때는 일본을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지금 흰머리를 연색하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가 끊겼어요.
오랜만에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서 안심 됐어요.

그후에는 이탈리아에서 친구도 생기고 그 친구랑 멀리 외출하고 거기서 여러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어느 가게에서 명랑하고 친절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어요.

순식간에 한달이 지났어요. 아직 귀국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돌아갔어요.
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다시 여기에 돌아오기로 했어요.

이탈리아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근데 일본 공항에 마중 나온 엄마가 처음 한 말은 "프로레슬러 선수가 온줄 알았어."
이었어요. 그때 제가 똥똥하 것을 깨달았어요.

글짓기 대회 주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장소>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계양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계양산입니다. 계양산은 인천에서 유명하고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옵니다. 우리 집은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여기에 갑니다. 계양산은 높지 않지만 올라가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산에 오르면 공기가 맑고 시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계양산에 오르는 길에는 나무와 꽃이 많이 있습니다. 새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 계절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푸르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뻐집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서 하얗게 변합니다. 특별히 유월부터 시작하는 장미공원의 아름다움은 인기가 많습니다. 장미에는 노랑, 빨강, 분홍, 하얗, 주황 색이 많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장미 향기가 제 마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파란 하늘과 단풍이 잘 어울려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또 가을 공기가 시원하고 개끗해서 숨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의 계양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을에 등산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놀아서 저는 매우 즐겁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천 시내가 잘 보입니다. 처음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가끔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혼자 갑니다. 저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합니다. 사진도 찍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경치 구경을 좋아합니다.

계양산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꼭 여기에 와 주세요.



사랑하는 서우

저는 제 딸 서우를 너무 사랑합니다.

서우는 태어난지 11개월 됐습니다.

서우는 너무 귀엽고 예뻐합니다.

그리고 서우는 요즘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걸음마도 시작했습니다.

서우는 이유식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서우는 밤에 잠을 잘 안 잡습니다. 낮에만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요즘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잠을 자는 습관을 낮에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서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지혜롭고 착한 아이가 될 수 있게 늘 공부합니다.

앞으로 서우가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글짓기 대회 주제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

<내가 바라는 미래>

한	국	에	서	꼭	해	보	고	싶	은	일													
저	는	4	년	전	에	한	국	에	온	베	트	남	사	감	입	니	다	.					
4	년	동	안	살	면	서	,	한	국	음	식	에	많	은	관	심	이	있					
었	습	니	다	.	그	래	서	한	국	에	서	꼭	해	보	고	싶	은	일	은			10C	
한	식	요	리	사	자	격	증	을	취	득	하	는	것	입	니	다	.	한	국				
에	오	기	전	에	한	국	음	식	은	매	운	맛	인	줄	알	았							
는	데	한	식	의	맛	이	정	말	다	양	했	습	니	다	.	베	트	남	과				
한	국	은	지	리	와	기	후	가	다	르	기	때	문	에	요	리	를	구				20C	
성	하	는	재	조	도	매	우	다	릅	니	다	.	베	트	남	에	는	콩	나	물			
이	없	기	때	문	에	한	국	에	처	음	왔	을	때	콩	나	물	이						
숙	주	나	물	인	줄	알	았	습	니	다	.	요	리	재	조	와	요	리	방				
법	을	배	우	기	위	해	한	국	요	리	수	업	을	듣	고	있	습					300	
니	다	.	여	제	김	치	를	담	그	는	법	도	알	고	,	잡	채	며	비				
빔	밥	이	며	기	본	적	민	요	리	도	만	들	수	있	게	됐	습	니					
다	.	남	편	과	아	이	들	이	"	엄	마	,	너	무	많	있	어	요	"	,	"	여	
보	,	잘	했	어	오	"	라	고	만	하	는	것	을	듣	고	너	무	기				400	
뻘	습	니	다	.	2	년	후	에	저	희	목	표	는	한	식	요	리	자					
격	증	을	따	는	것	입	니	다	.	현	재	아	이	들	이	아	직	여	려				
서	조	금	힘	들	저	만	한	식	요	리	사	가	되	도	족	노	력	하					
고	있	습	니	다	.	저	는	사	랑	하	는	사	람	들	은	위	해	맞	았			500	
는	요	리	를	만	들	고	싶	을	뿐	만	아	니	라	,	베	트	남	사					
람	과	한	국	사	람	들	에	게	한	국	요	리	를	소	개	하	고	싶					
습	니	다	.	그	리	고	각	각	의	모	리	를	통	해	한	국	의	문	화			600	
와	역	사	를	소	개	하	고	싶	습	니	다	.	배	워	야	할	것	이					
많	지	만	가	족	의	경	려	와	지	원	덕	분	에	저	는	제	목						
표	를	이	를	수	있	을	거	라	고	믿	습	니	다	.	목	표	를	이					
주	기	위	해	서	적	는	오늘	도	계	양	구	가	족	지	원	센	터	에					
서	열	실	히	한	국	어	를	공	부	하	고	있	습	니	다	.						700	

글짓기 대회 주제

<가족의 의미>

가족은 하나의 팀



우리 가족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설명할 때, 가족은 하나의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팀은 배고팀일 수도 있고, 축구팀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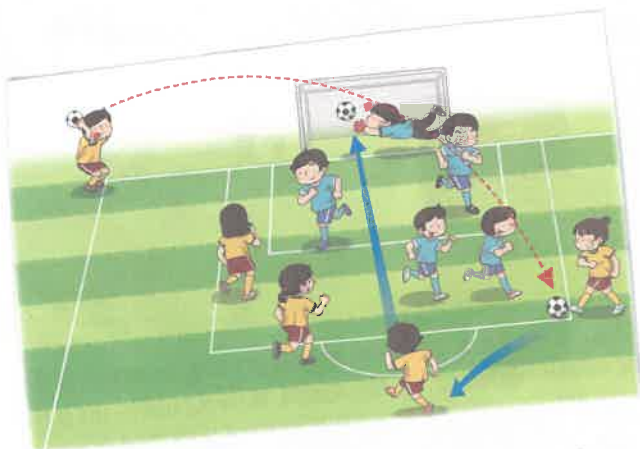
인생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가족은 바로 그 게임에서 하나의 팀입니다. 팀의 사람들은 자리와 역할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와도, 가족은 서로를 지킵니다. 가족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 동반자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줍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팀은 단단해 집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만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좋은 가치, 예절, 용기를 배웁니다. 삶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러나 사랑이 있으면 희망도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 행복을 지킵니다.

마리아나



글짓기 대회 주제

<나의 하루>

<한국 생활 이야기>

나의 하루

안녕하세요 저는 NGUYEN THI THANH XUAN 이에요
이것은 나의 하루예요.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침대에서 간단하게 10분정도 운동해요.
8시10분에 이불 덮고 샤워해요. 샤워하고 나서 따뜻한 물을 한잔
마셔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아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화장하면서 뉴스를 좀 봐요.

8시50분에 일출하러 나가요. 저는 식당 호텔에서 일하는데요.
우리 식당은 기포공항에 있는 롯데몰이에요. 집에서 기포공항까지 지하철로
40분쯤 걸려요. 지하철을 타면서 한국어 좀 공부해요. 7시부터
9시까지 회사원들은 일출하러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 제일
혼잡해요.

9시30분에 롯데몰에 도착해요. 이시간에 손님들 들어가며 야드해요.
직원들 밖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출입증에 필요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오늘 갈아 입고 일을 시작해요.

10시에 아침식사를 해요. 매일 아침식사는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와 김치찌우 우리 식당의 대표음식이고 너무 맛있어요.

10시30분에 업무를 시작해요. 여기는 롯데몰이고 기포공항이
가까워서 사람이 많아요. 항상 외국사람들 볼 수 있어요. 특히
일본사람이 많아요.

저는 음식에 나갈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손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도 기분이
좋아요. 손님들의 마음에 드도록 언제나 웃어야 해요. 한국사람들 자주
치천해요. 저에게 항상 "가사합니다" 라고 해요.

제 매니저는 엄청 친절하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동안
모르는 것을 친절히 가르쳐 줘요. 여기에서 일을 한지 다섯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다 할 줄 알아요. 사장님은 자주 오지 않고
직원들만 착하니까 아주 편해요.

9월 2시가 되면 점심을 먹어요. 주방장과 중국사람
한테 한국음식도 잘 해요. 우리는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고
중국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제 옆에 잘 맛아서 밥을
많이 먹어요.



오후 3시부터 수서대로 쉬러가요. 1시간 반 쯤 쉴 수
있어요. 휴게실이 있어서 잠을 잘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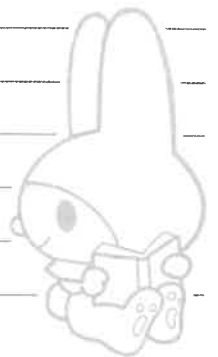
저녁에 다시 일을 하고 9시에 마감해요. 손님이 다 나가면
청소를 해요. 혹시 빨리 끝나면 일찍 퇴근해요.

저녁 10시 10분에 집에 도착해요.

이 일이 힘들지만 스트레스를 아 받아서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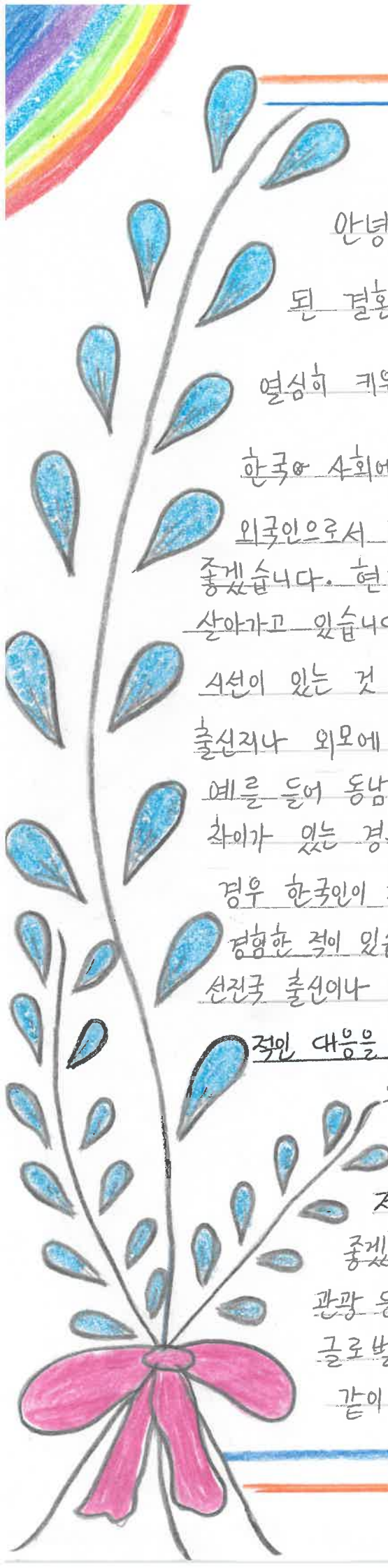
매일 똑같은 일을 해서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내 삶이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롯데몰에 가보적이 있어요. 혹시 아직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 보세요. 가게가 많고 놀이터도 있어요. 아이가 있으면
놀이터에서 놓고 배가 고플때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쉬는날에 가면 좋은 거예요.



글짓기 대회 주제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바라는 점>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5년이
된 결혼이민자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 두 명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짓기 대회가 있기에 “외국인으로서는

한국 사회에서 바라는 점” 주제로 간단한 글을 쓰겠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이백 칠십만 명이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진국 출신들이 은근히 차별의
사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색, 생김새, 국적등 외국인
출신지나 외모에 따라 호감과 비호감의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소 검거나 외모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안에서 마주치는
경우 한국인이 차리를 피하거나 만났을 꺼리는 등 다소 차별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같은 외국인이라도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 출신이나 백인 같은 외모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소 호감
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여러번 봤습니다. 피부색이나 생김새
외모를 통해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매우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차별의 사선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 학업,
관광 등 여러 목적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진정한 이웃 사촌으로 화목하고 즐겁게
같이 지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